

L사 스텝 업(Step-up) 교육 과정

효과적인 경력전환을 위한 생애설계 교육



글로벌교육사업본부
이승준(Jun) 매니저

교육과정의 기본 사항을 소개한다면...

L사 재직 10년, 20년, 30년차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해당 교육은 경력 전환기에 있는 재직자들의 효과적인 경력전환 역량 함양을 위한 맞춤형 생애설계 교육입니다. 제주도 일원에서 7주간 매주 1차수씩, 총 7차수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각 연차에 따라 학습자들의 연령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맞춤형 강의 및 일정을 수립 및 진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재직 10년차 학습자들이 에니어그램 워크샵을 통해 조직 내 역할 인식 및 소통의 기초를 학습했다면, 30년차 학습자들은 인생 2막을 위한 심리학 또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강의 프로그램 외에도 요트, 올레길, 사찰 투어 등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준비과정에서 특별하게 Focus를 맞춘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각 연차 별 맞춤형 강의 프로그램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전국 각지의 L사 직원분들이 제주도로 이동하여 짧게는 2박 3일, 길게는 4박 5일을 지내셔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안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또한 과정 특성상 오픈된 장소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한 최대한의 사전 예방과 대비책을 마련해 놓아야 했습니다. 숙소, 식사의 컨디션은 물론 학습자들의 체력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일정을 수립하였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상비약 구비 및 일정 내 병원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학습자가 일정



어색함을 풀어준 아이스브레이킹 타임



건강관리 프로그램에서 강사님이 몸소 시범을 보여주는 장면

중 멀미를 심하게 하여 병원을 방문하려 한 적이 있는데 사전 조사 및 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지난 교육 일정을 되돌아본다면...

7주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지시나요? 길게 느껴지시나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만큼 교육과정 안에서도 많은 인사이트를 얻은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다른 학습자분들과 짧게는 2박3일, 길게는 4박5일의 일정을 함께 하며 그들의 의견을 들었고 매 차수가 진행될 때마다 더 원활하고 만족도 높은 교육을 위해 힘썼습니다. 분명 특이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과정이었지만 그만큼 시야를 더 넓힐 수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체력, 긴급상황 발생 등 여러 방면에서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음번에도 비슷한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번 과정을 통해 얻은 노하우로 보다 퀄리티 높은 교육 진행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교육 중에 기억에 남는 학습자나 관련 에피소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저희는 매 차수 교육시작 전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가키트를 통한 코로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차수 첫 날, 한 학습자분이 자가키트 검사 결과 양성 이 나오셨고 저는 그 즉시 학습자분과 함께 인근 보건소로 가서 PCR 검사를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그 후 학습자분은 익일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숙소에서 대기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해가 뜨고 동시에 학습자분께 양성이라는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해당 차수는 2박 3일의 일정이었고 방역지침상 코로나 확진자는 1주일간 제주도를 떠날 수 없었기에 학습자분은 숙소에서 7일간 머무르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저 또한 함께 제주도에 머물렀습니다. 솔직히 약 7주만에 육지를 밟을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의외롭게 펼쳐진 상황이 흥미롭기도 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격리하게 된 학습자를 생각하니 감히 투덜댈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와 학습자분은 공항으로 함께 이동했고 아무 탈 없이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인가요?

진부한 말일 수 있지만 학습자가 교육과정에 대해 만족하고 저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네 주신다면 그게 가장 큰 보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동료들과의 시너지, 그리고 과정진행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촬영 작가님, 여행사, 호텔 관계자 등)과 함께 큰 사건사고 없이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또한 큰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지만



수많은 테마가 펼쳐지는 노형수퍼마켓 메일 홀 관람 장면



오토 투어 프로그램 내 낚시하는 장면



인생 제 2막을 위한 심리학강의 장면

그런 부분은 차후 비슷한 과정을 진행하게 될 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양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인의 Mission이나 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직 오랜 시간 달리면서도 재미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큰 꿈을 찾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작은 미션 및 목표를 달성해 나가며 지내는 중입니다. 먼저 업무적으로는 꼼꼼함을 겸비하려 합니다. 스스로를 돌이켜 보았을 때 어떤 일을 하면 꼭 한 가지는 흥미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처리해낼 수 있도록 더블체크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 극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업무 외적으로는 평소에 하고 싶어 하지 않던 것 또는 예전에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것을 다시 도전해보는 중입니다. 또한 굳이 궁극적인 꿈을 꼽아 보자면 너무 막연할 수 있지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다. 반드시 그 수단을 찾아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